

'익산 수해 현장엔 밥 짓는 냄새가'

'사랑의 밥차' 수해복구 현장 군 장병에 하루 1000인분 식사 제공 등 후원 행렬 잇달아

익산시 수해 현장에 출동한 '사랑의 밥차'가 복구 작업에 나선 장병들에게 따뜻한 한 끼로 응원을 전하고 있다.

익산시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운영을 시작한 사랑의 밥차가 하루 1,000인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 8~10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공공·사유 시설을 모두 더해 201억 원 가량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망성면과 용안면, 용동면 일대에는 매일 군 장병 1,500여 명 이상의 투입돼 침수 가옥과 농사 재배 시설의 오물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수해 복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제35보병사단을 중심으로하는 지역 군 장병들은 지난해 익산시가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당시에도 복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려 주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이어지는 고된 작업에 지친 군 장병 등 봉사자들은 정성 어린 손길로 만들어진 수제 도시락을 맛보며 힘을 얻고 있다.

우선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원불교 중앙교구와 전북교구 등 지역 단체들이 가장 먼저 준비를 마치고 현장으로 달려왔다. 전주지사자원봉사센터와 전주연탄은행 등에서도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22~23일 부산광역시 삼광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익산 수해 현장에 찾아 사랑의 밥차를 운영한다.

경북 경주시 역시 올해도 깊은 우정을 과시한다. 경주시는 익산시와 1998년 첫 결연을 맺고 20여 년째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자매도시다. 경



익산시 수해 현장에 출동한 '사랑의 밥차'가 복구 작업에 나선 장병들에게 따뜻한 한 끼로 응원을 전하고 있다.

주시는 차로 3시간 거린 망성면까지 사랑의 밥차를 보내 매일 400인분의 식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익산시와 자율방재단 상호지원 협약을 맺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도 밥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구 작업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물품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오성종합기획은 1,000만 원 상당의 생수 1만 개를 (유)우경에너지는 600만 원 상당의 이온 음료를 6,000개를 각각 시에 전달했다. 기탁된 물품들은 익산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수재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취한광전력·취기선전력·유)유진

기술사무소는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수해 복구 성금으로 시에 기탁했다.

이웃을 돕고자 뜻을 모은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이 나온다. 용포면의 11개 주민 단체는 수해를 입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십시일반 모은 성금 57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자매도시 경주를 비롯해 부산, 전주 등 각지에서 보내주시는 지원이 수해로 상처를 입은 우리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그 마음들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국내 최대 요리 경연 'NS 푸드페스타' 개최

요리경연 가정간편식 부문 60팀 선발... 29일까지 참가자 모집

식품산업의 메카 익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식문화축제 NS 푸드페스타가 전국 요리 경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익산시는 오는 29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경연 참가자를 NS홈쇼핑 PR누리집(pr.nsmall.com)을 통해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2인 1팀으로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고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진출자 60팀을 선발해 오는 8월 5일 발표한다.

총 상금은 1억 1250만원으로 축제 개최 당일 본선 경연 후 시상식을 통해 가정간편식 부문은 △대상(1팀) 300만원 △최우수상(1팀) 100만원 △우수상(2팀) 300만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한다.

프레쉬박스 부문은 △최우수상(1팀) 300만원 △우수상(1팀) 200만원을 수여하고, 영세프랜차이즈 부문에는 △최우수상(1팀) 300만원 △우수상(1팀) 200만원 △특선(3팀) 100만원의 상금

을 제공한다. 수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본선 참가자에게 소정의 상금과 상이 주어진다.

NS 푸드페스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경연으로 2008년부터 매년 (주)하림 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하다 2022년부터 익산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는 오는 9월 26~27일 이틀간 함열읍에 위치한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진행한다.

축제 첫날인 9월 26일에 열리는 요리경연은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가장 맛있는 레시피'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가정간편식 부문 60팀, 프레쉬박스 부문 20팀, 영세프랜차이즈 부문 20팀으로 총 100팀이 열띤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밖에 프레쉬박스 부문은 전북지도 식품산업대학생 20팀이 참여한 전북의 식재료를 활용한 경연을 진행하고, 영세프랜차이즈 부문은 조리특성화고 학생 20팀 대상, 별도 초청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식 개최

한화에너지, 사회공헌 사업 진행... 올해 4500만원 상당 지원

군산시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일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공장장 허영재)과 2024년 희망나눔 지역복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은 2013년부터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을 통해 누적 금액 3억5,300만원 상당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로 12번째가 되는 협약을 맺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연 4,500만원 정도의 후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학습 환경이 열악

한 저소득 아동 공부방 꾸미기 및 에너지 교실 사업, 사회복지시설 수리 및 후원품 지원 등이며 이를 통해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허영재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장은 "우리의 협약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자동차업종 근로자 처우개선 지원 나서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추진... 신규 입사자 최대 300만원 지원

익산시가 자동차업종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역 자동차업종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전북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은 지난 4월 25일 고용노동부-현대·기아자동차-중소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이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선정됐으며 도·시 컨소시엄으로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 익산을 포함한 도내 자동차업종 고용 활성화와 인력난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대상은 지역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및 근로자이다. 주요 사업은 △일자리 채용 지원금 △일자리 도약 장려금 △복지 지원 사업이다.

일자리 채용 지원금은 자동차업종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근무하면 각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만 35~59세 이하 신규 근로자와 최저임금의 120%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업체에 월 100만원씩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복지 지원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휴가비와 건강검진비를 개인별로 각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체와 근로자는 8월 첫째 주에 진행되는 접수기간에 사업수행기관인 (주)캠텍종합기술원 누리집(www.camtic.co.kr)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안심하고 먹는 수도물 공급 '최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내달 완료 예정

군산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64.6억원(국비 70% 시비30%)을 투자하여 추진해온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올 8월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도물을 공급하는 전 과정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실시간 수량과 수질 감시는 물론 수도물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군산시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2019년 인천 북은 수도물 사태와 2020년 인천

수도물 유출 발생을 계기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낀 이후 물 공급 전 과정에 감시·예측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수도사업소는 향후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수도물 수질사고 예방, 특히 관망 지역의 적수발생 빈도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4 전북 고향

사랑기부 페스티벌 참가

군산시가 지난 19~22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8홀에서 열리는 '2024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군산시와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우리 고향 살리기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이라는 주제로 전북도민일보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북자치도·전주·익산·김제·완주·고창·부안 총 8개 지역에서 참가한다.

군산시는 홍보 부스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상담 △꽃게장·울외장어찌·쌀·박대·군산 짬뽕라면 등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19개 품목 답례품 전시 및 시식 행사 △현장 기부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의 매력을 한껏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제공되는 군산 답례품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의회, 임피면서

수해복구 지원 나서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수해를 입은 임피면 지역을 찾아가 복구작업에 총력을 쏟았다.

지난 19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전날(18일) 진행된 수해복구에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을 비롯하여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 박경태 의원과 육군 9585 1대대 정병 등 7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침수된 토마토 작물 운반·철거작업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보탰다.

김우민 의장은 "오늘 수해 복구 작업이 조금이나마 피해 농가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신속하게 복구 작업이 진행되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 13일에도 성산면과 나포면 일대에서 산사태로 주택, 농장에 흘러내린 토사 및 폐기를 처리 등 피해 복구 작업을 한 바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유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